

太平洋戰爭期 朝鮮人敎化의 方向設定

-朝鮮總督府 編纂 <地理>敎科書를 中心으로-

柳 徹 · 金 順 槓*

(e-mail : yanakawa0@gmail.com · sjkim77@jnu.ac.kr)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3. 戰時 地理敎育 |
| 2. 非戰時 地理敎育의 확립과정 | 4. 나오며 |

키워드 : 國民敎化(education of nation), 戰時體制(a war footing), 戰時敎育(War-focused on education, 殖民地敎育(colonial education), 地理敎育(geography education), 日帝强占期(Japanese colonial era)

1. 들어가며

오늘날 지구상에서 전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반인륜적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 왔으며, 세계평화를 위해 유엔이 창설된 이후 45년간을 보더라도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3주간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전쟁으로 점철된 세계역사 속에 대한민국 또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일제강점동안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해방 이후에는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등 이 좁은 한반도에서도 한 세기 동안 두 번의 전쟁을 겪었다.

전쟁이 발발되면 국가는 모든 역량과 인적자원을 총동원하여, 오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모든 총력을 기울인다. 이 과정에서 평시의 국가적 기능은 마비되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가 전쟁승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중에서도

*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

** 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교수

특히 국가는 자국의 안전과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안보교육을 적극 공론화하여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전시 국가체제에 대한 명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이러한 국가적 행위는 인류가 역사적으로 전쟁이 국민, 국권, 국토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나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상황에 맞는 국가 안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일깨워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승리를 위해서는 안보의식으로 무장된 국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들의 확립된 국가관은 곧 무형전력으로 바뀌어 국가의 전시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한반도에서는 일제가 ‘일본’이라는 국가관 확립과 ‘천황’을 위한 자각을 고취시키기 위해 ‘국민교화’와 ‘안보교육’을 동시에 실시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일제가 조선인에게 행한 교육방식은 기존의 ‘조선’이라는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말살시키고 일본인으로 ‘동화(同化)’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강점후기에 접어들면서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에서 얻은 승리와 <태평양전쟁>을 치루면서 군부가 주도하는 ‘전쟁승리’를 위한 ‘국민교화’ 교육으로 전면 수정된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기존의 조선인에게 행해온 노무관리 차원의 교육방식에서, 조선인에게도 일본인에 버금가는 황국신민다운 자각과, 황국을 위한 국가관, 그리고 사생관(死生觀)을 요구하기 위해 교과서를 제작·편찬한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강점 초기에 심화과목에 치중해온 교육방식에서 일본이라는 국가정세와 존재가치, 나아가 천황의 우월성을 조선인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그동안에 등한시 한 교과목들이 뒤늦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특히 이 시기에 조선인에게 가르치게 된 ‘지리교육’은 이와 같이 뒤늦게 중요성이 대두된 대표적인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일제는 조선인을 황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가의식과 영역의식을 함께 일깨워주기 위해 전쟁을 빌미로 지리교육을 주요 교과목으로 편성시킨다. 따라서 전쟁이 보다 격렬해지는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지리교과서의 변화를 비교분석한다는 것은 당시 일제가 추진하고자한 전시교육정책의 실상을 엿 볼 수 있는 실증적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평시(태평양전쟁 발발이전)와 전시(태평양전쟁 발발이후)로 나누어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지리교과서¹⁾를 바탕으로 ‘전쟁’이 교육에 미친 영향과 이러한 영향이 교과서 구성에 어떻게 변화를

주었는지 구체적인 실상을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더불어 강점초기에는 선택과목에서 전쟁과 함께 심화과목으로 재구성된 지리교과목이 태평양전쟁과 더불어 일제가 조선인에게 확고히 다지고자한 국가관과 황국신민교화를 위한 왜곡된 안보교육이란 무엇인지를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과 구성상의 변화를 통해서 구명하고자 한다.

2. 非戰時 지리교육의 확립과정

근대일본에서 지리교육의 시작은 서구세력에 대한 놀라움과 세계정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서구열강국의 지리적 지식과 개념을 아동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일본의 지리교육은 세계 속에서 일본이라는 국가자체의 현재적 위치를 국민에게 하루빨리 알게 하여, 문명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 당시 일본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소학교 지리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지리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특히 메이지시대는 지리교육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째 개화계몽주의를 위한 지리교육으로 세계문명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지리교육, 둘째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지리교육, 셋째 부국강병을 위한 국책을 근거로 국민의식을 통일시키기 위한 국가주의적 지리교육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²⁾. 이러한 흐름 속에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는 1869년 8월에 일반 국민에게 세계지리를 알리기 위한 계몽서 『세카이쿠니즈쿠시(世界國盡)』를 편찬한다. 이 서적은 당시 베스트셀러에 선정되는데 목차를 보면 ‘발단, 아시아주, 아프리카주, 유럽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대양주, 지리학 총론’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주(洲)의 개관을 설명한 뒤 주요국가의 지지(地志)를 설명하고 있다.

1) 본 논문에서 다룬 주 텍스트는 태평양전쟁기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初等地理(1942)』와 『初等地理(1944)』 두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이유는 일본사적으로 당시 전시체제란 15년 전쟁인 <만주사변>이 기점이 되나, 실질적으로 조선인에게 ‘진시’란 <중일전쟁> 전후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태평양전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2) 木全清博(2006), 『近代日本の教科書の歩み』, サンライズ出版, p.50

다음 내용은 이 서적에 기술된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영국은 세계 제일의 교역이 번창한 나라이어서, 여러 나라의 배가 출입하고 항구의 번창함은 말할 것도 없이 온 나라의 왕래도 매우 편리하다. 근래 증기선은 진귀하지도 않지만, 일본인이 이제껏 보지 못한 증기차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말이나 소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증기 장치로만 달리는 자동차이다. 그 빠르기는 참으로 사람의 눈을 놀라게 하여, 대략 1시간에 20리나 달릴 수 있어서, 도카이도 53역 정도는 한 주야로 갔다 올 수 있을 것이다³⁾.

메이지초기 전쟁이 발발되기 이전의 지리교육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개화계몽주의적인 지리교육이 중시되었는데, 위 내용을 보면 외국의 지리적인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서적에 기술된 내용은 후쿠자와 유키치가 막부말기에 해외 도항(渡航)을 경험한 자들의 경험과 이들이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세계문명의 소개나 각국의 풍습, 문물 지식 등, 아직 문명을 접하지 못한 독자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시기 사범학교와 문부성은 『地理初歩』(1873), 『日本地誌略』(1874), 『萬國地誌略』(1874) 등 지리교과서를 차례로 발행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萬國地誌略』은 영국의 지리서를 번역한 것이었다.

1877년 후반부터는 왕정복고(王政復古)의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세계문명을 알리기 위한 지리교육의 모습이 사라지고, 일본 지지(地志)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향토지지(郷土地誌) 지식을 위한 지리교육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맥락은 1891년에 공포된 「小學校教則大綱」에서도 찾아낼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지리 및 외국지리는 백성의 생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게 하고 아울러 애국의 정신을 양성할 것을 요지로 한다.’⁴⁾고 기술되어있다.

1890년대는 처세(處世)에 알맞은 지리교육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심상소학교

3) 英吉利は世界第一商賣繁昌の國なれば諸國の船の出入して港の賑しきはいふまでもなく國中の往來も甚だ便利なり。近來蒸氣船は珍らしからざれども日本人のいまだ見ぬ蒸氣車といふものありこれは馬も牛も用ひず唯蒸氣の仕掛にて走る車なり。其疾きこと實に人の目を驚かす大抵一時に二十里も走るゆへ東海道五十三驛などは一晝夜にて往返すべし。

4) 日本地理及外國地理ハ人民ノ生活ニ關スル重要ナル事項ヲ理念セシメ兼ネテ愛國ノ精神ヲ養フヲ要旨トス

지리교육의 내용을 보면 ‘향토의 지형(地形) 방위(方位) 등 아동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물에 대해서 단서를 둘 것⁵⁾을 기본 방침으로 삼았다. 그리고 ‘일본의 지형, 기상, 대형도시, 인민생활 등의 개략’을 교육하도록 바뀌게 된다. 즉 이 시기의 교과서는 개화적인 문명지리요소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나,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생업과 관련된 내용과 함께 가르친 것으로 볼 수 있다.

1900년에는 <소학교령>이 개정 공포되고 <소학교령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지리교과목은 역사교과목과 더불어 소학교과정에서 교육받지 않게 되고, 고등소학교과정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도록 지정된다. 이 시기부터는 지리교과목 자체의 교육목적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 여기서 지리교육의 목적이 개정된 내용이란 ‘지리는 지구의 표면과 인류생활의 상태에 관한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또한 일본 국세의 대요를 깨닫게 하고, 아울러 애국심 양성에 기여할 것을 요지로 한다.’⁶⁾는 것이다.

즉 1890년대에 언급된 「小學校敎則大綱」에서는 ‘인민 생활의 이해’가 강조되었으나, 이 시기부터는 ‘일본국세의 대요’를 가르치도록 하는 새로운 목적이 등장하면서 결국 지리교과목도 다른 교과목들과 함께 ‘애국심양성’을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게 된다.

특히 고등소학교(4년제)에서 활용된 지리교과서에 기술된 주된 내용은 지세(地勢), 기후, 구획(區畫), 도시, 산물, 교통, 지구의 형상과 운동의 대요를 가르치는 일본지리와 각 주의 地勢, 기후, 구획(區畫), 교통의 개략과 일본과의 정치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지위와 대요를 가르치는 외국지리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었다.

<청일전쟁> 승리 이후에 발행된 지리교과서에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기존의 문명과 일상생활이 연계된 일본 본토의 부(府)와 현(縣)을 가르치는 향토지지 교과서는 더 이상 발행되지 않고, 지리에서 국가의 본위적인 대요와 입장을, 지리교육을 통해 가르치도록 변화된다. 이러한 변화는 당시 일본의 초등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적용하는데 기존의 향토지지적인 교육은 사라지고, 일본열도 전 지역에 대한 기후, 구획(區畫), 산물, 교통 등 단편적이

5) 郷土ノ地形方位等兒童ノ日常目撃セル事物ニ就キテ端緒ヲ開キ

6) 地理ハ地球ノ表面及人類生活ノ狀態ニ關スル知識ノ一斑ヲ得シメ又本邦國勢ノ大要ヲ理會セシメ兼テ愛國心ノ養成ニ資スルヲ以テ要旨トス

고 나열적인 지식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전쟁에서의 승리는 교육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엿 볼 수 있다. 그리고 <러일전쟁> 승리 이후 발행된 지리교과서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과 관계 깊은 외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도, 조선, 대만, 사할린(樺太), 관동주, 만주 등 자신들이 실효지배 하는 지역에 대한 내용 등 충군애국(忠君愛國)과 국민으로서의 국위(國威)를 더욱 강조한다.

일제는 <제1차 조선교육령>의 공포를 시작으로 조선인에 대한 교육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시키고 규제하기 위해 <사립학교규칙>, <보통학교규칙>, <고등보통학교규칙> 등의 다양한 교육관계법령을 속속히 제정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강점초기에 조선인에게 주입시키고자 한 교육방식은 하루 빨리 ‘충량한 국민의 육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조선인들로 하여금 천황과 일본에 절대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일본제국주의에 복종하는 양순하고도 무기력한 그들의 노예로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일제는 일본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서 조선인에게 저급한 근로자이자 노무자로서의 역할자로 분류했기 때문에 일본인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 조선인에게 실시한 차별교육은 일제가 계획하고 추진했던 것과 달리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다. 그 이유는 3·1운동 이후 한반도 곳곳에서 일본인과 동등한 학제(學制)와 교육을 호소하는 불만이 치솟으면서, 조선인에게 실시한 차별화된 교육방식에 상당한 불신을 품게 되었기 때문이다.⁷⁾ 이 시기 조선인들의 격앙된 민심과 반감이 한계에 다다르자 당시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유게 고타로(弓削幸太郎)는 교육의 불평등함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논리로 지리교과목의 입지에 대한 변화를 공개적으로 예고하기에 이른다.

보통학교에서 지리·역사의 교과목이 빠져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학교는 현재 4년으로 수업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내지(일본)에서도 4년을 수업할 경우 지리·역사를 교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에서도 수업연한이 6년이 된다면 꼭 지리·역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⁸⁾

7) 《東亞日報》(1921.3.2.) ‘사실은 사실대로, 조선사는 조선사대로’라는 구호 아래 역사와 정치의 분리, 조선사는 조선사대로 동서양 역사의 분리 등을 주장하고 있었다.

위 내용은 고학년 과정(5, 6학년)이 존재해야지 만이 지리교과목을 배울 수 있는데, 조선의 학제는 그동안 4년제였기 때문에 일본인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악의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선교육령>이 개정되는데, 학제의 연장이 언급되면서부터 지리교과서 보충교재가 발행된다. 위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20년까지의 학교교육의 실상은 3·1운동을 기점으로 격동된 조선인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점차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리교과목이 정규과목화 된다. 특히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변화시키하고자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내지(內地) 일본과 비교했을 때 한참 뒤쳐진 교육의 격차를 줄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다.

조선인에 대한 교육방침의 변화는 <교과서편찬 방침>에도 자세히 나타나 있다. 여기서 주된 내용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교육제도를 동일하게 한다는 취지에 따라 교과서 내용도 가능한 한 문부성 제작의 국정 교과서와 보조를 맞추거나 이에 상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선융화를 위해 일본과 일본인에 관한 자료를 가한다.”는 방침은 이후 본격적인 <일선동조론>, <내선일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 천황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결국 교육령과 다양한 방침의 개정을 통해서 조선인에게 가르치게 될 지리교과목은 외형상 조선인과 일본인의 동등한 교육방침을 내세우지만 교육내용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면, 보다 바람직한 일본인적인 사고를 요하게 되며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노골적으로 말살시키는 계기가 되는 시기이기도 한다.

3. 戰時 지리교육

일제가 조선인에게 추진한 식민지교육의 기본방향은 ‘아시아 제민족(諸民族)의 일본인화, 즉 황국신민화교육’이었다. 일제는 아시아 각 지역의 식민지민족을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며, 그들의 민족의식을 말살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 조선의 문화적·정신적 전통과 생활양식을 파괴하고 민족언어를 말살시키는 수단으로 식민지교육을 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책

8) 최양호(1990) 「일제 통치하 한국에 있어서의 초등 국사교육과정연구」 『역사교육』 48집, p.66 에서 재인용.

노선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을 실시하고자 사용했던 직접적 방법이 바로 학교교육과정의 개편과 그에 따른 실천이었다⁹⁾.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조선인의 병역문제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 이유는 반일감정을 고려해 그동안에 조선인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¹⁰⁾. 이러한 전시준비체제에서 1932년에 조선총독부는 지리교과서를 기타 교과목들과 함께¹¹⁾ 개정 편찬 한다. 특히 이 시기에 작성된 교과서 편찬 취지를 보면 “우리 국체와 국가 관념을 명징할 만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하고 조선의 사력을 늘이고 특히 내선융화에 필요한 자료의 선택에 유의하며 한일병탄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다.”¹²⁾고 언급되어 있어 조선인들을 본격적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시기이기도 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이 시기에 조선인에게 가르치고자한 지리교과서의 구성과 단원명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표 1> 태평양전쟁기 이전의 지리교과서 구성

| 단원 | 1932년 『初等地理書』 卷一 | 1933년 『初等地理書』 卷二 |
|----|------------------|------------------|
| 1 | 我が國 | 中國及び四國地方 |
| 2 | 朝鮮地方 | 九州地方 |
| 3 | 樺太地方 | 台灣地方 |
| 4 | 北海道地方 | 我が南洋委任統治地 |
| 5 | 奥羽地方 | 關東州 |
| 6 | 關東地方 | 日本總說 |
| 7 | 中部地方 | 太平洋 |
| 8 | 近畿地方 | アフリカ州 |
| 9 | | 南アメリカ州 |
| 10 | | 北アメリカ州 |
| 11 | | アジア州 |
| 12 | | ヨーロッパ州 |
| 13 | | 日本と世界 |
| 14 | | 地球と表面 |

9) 권종린(2006), 「일제시대의 조선 교육과 정책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

10) 당시 일본 당국자들은 1922년 <2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기 이전까지 앞서 전술한대로 역사적 반감의식을 갖고 있는 점, 그리고 신체가 건강하면 자신들에게 반항할 것이라는 우려로 국사, 체육 이 두 교과목을 경시하고 있었다.

11) 가장 핵심교과목인 국어(일본어), 수학과 함께 개정 편찬하게 된다.

12) 박경식(1986)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이출판사, p.398.

이 시기에 편찬된 지리교과서는 일제가 조선인 아동을 위해 제작된 최초의 정식 지리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다. 『初等地理書』의 특징은 <러일전쟁>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를 각 단원에 일본이 통치하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설명되어 있는 점이다. 이 시기 조선인을 위해 제작된 이 시기의 지리교과서는 앞서 언급했던 일본이 1900년대 초반에 적용한 지리 교육방식의 구성과 거의 비슷하다. 5학년 교과서는 일본 지리로서 각 지역의 地勢, 기후, 구획, 도회, 산물, 교통 등을 가르치고, 6학년 교과서에서 외국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향토지리 교육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이 지리교과서의 또 다른 특징은 외국지리에 대한 분량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인을 위해 제작된 지리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1928년 이전까지는 일본지리를 중심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이때부터 외국지리에 대한 내용을 대폭 증가시키면서 1918년에 『尋常小學地理書』에서는 불과 18면에 불과했던 내용이 82면으로 분량이 대폭 증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교과서 편찬취의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세계적인 지위를 강조하고, 국민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이 이 시기의 지리교육의 주된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외국지리와 관련된 지면이 늘어났지만,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 러시아, 인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내용은 가르치지만 서아시아, 중앙아시아에 대한 내용은 철저하게 배제시켰다. 이는 오직 일본중심적인 입장에서 자국과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자원이나, 시장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거나 제국주의국가 또는 선진 자본주의국가만이 지리교과서에 기술될 수 있는 주요 대상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初等地理書(1932)』의 또 다른 특징은 이 교과서보다 다소 먼저 제작된 일본인 아동을 위한 『尋常小學地理書』에서도 기술되어 있는 남양군도와 관련된 단원 「我が南洋委任統治地」가 포함된 점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이 단원의 내용 일부를 발췌해 다음과 같다.

적도로부터 북쪽에 있는 구 독일령의 전부, 즉, 캐롤라인제도·마셜제도 전부와 마리아나제도의 대부분은 세계대전의 결과 우리나라가 통치하게 된 곳이다.¹³⁾

위 단원의 배경인 남양군도는 1919년 <베르사유조약>에 따라, 독일에서 일본으로 위임통치 되면서 산업으로 경제적인 후자를 일본에 안겨주는 요충지이다. 남양군도의 일본 통치는 일본과 동맹관계를 맺은 영국이 일본에게 같이 참전해

13) 赤道から北の旧ドイツ領の全部、即ちカロリン群島・マーシャル群島の全部とマリヤナ群島の大部分とで、世界大戦の結果、我が國が統治するやうになった處である。

줄 것을 요구하면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처음 일본은 자국의 함대를 외지로 파견하면 본토 방위가 허술해질 것이 두려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계속된 영국의 독촉에 의해 독일에게 수차례 최후통첩을 보냈음에도 일본은 끝내 무시당하자 참전을 결정하고 남양군도 지역을 공략하기에 이른다. 따라서 남양군도는 당시 세계 강대국이었던 독일군을 제압한 일본군의 우수성과 일본이라는 국가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매우 의미 있는 지역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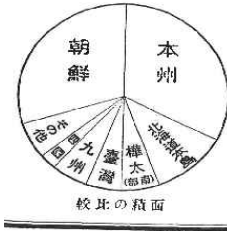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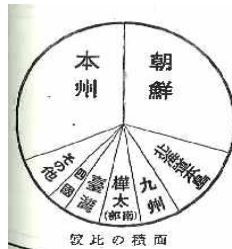
그러나 이 시기에 교과서에서는 독일과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다. 1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로 일본이 통치하게 되었다는 간략한 내용으로 식민통치지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가장 후미에 배치하면서 개략적으로 간략히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 단원을 제외하고는 각 지방별 단원에 지도를 삽입하고, 府와 縣별로 경계, 철도, 도회, 하천, 저명한 산악 등을 중심으로 기술되어있다. 이는 독일과의 전투와 <만주사변>이 국가적 차원에 전시체제에 돌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初等地理書』의 구성은 기존에 일본에서 가르친 구성방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1933년에 편찬된 지리교과서의 특징은 『尋常小學地理補充教材(1920)』 제1장에서 가르친 「大日本帝國」이라는 단원이 「我が國」로 바뀐 점이다. 「대일본제국」의 단원은 이후 1942년에 편찬되는 지리교과서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이 시기에만 유일하게 단원명이 바뀌어있었다. 이에 『初等地理書』의 내용과 『尋常小學地理補充教材』에서 기술된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우리 대일본제국은 아시아주의 동부에 위치하여 태평양에 있는 일본열도와 아시아대륙에 돌출되어있는 조선반도로 이루어진다. 일본열도는 크고 작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동북에서 서남으로 연결되어, 길이 거의 1,200리에 이른다. 열도 가운데 큰 섬으로는 중앙에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가 있으며, 서남으로 대만, 북으로는 사할린(남)이 있다.(중략) 규슈와 대만사이에는 류큐열도가 있으며, 그리고 북해도 동북으로는 지시마열도가 연이어있다. 또한 혼슈 남방해양에는 오가사와라제도가 있다. (중략) 우리나라는 오호츠크해, 일본해, 황해, 중국해 등을 사이에 두고, 러시아 중국과 마주하고 조선은 바로 시베리아 및 중국의 만주로 이어지고, 사할린은 북 러시아령과 연결된다. (중략) 민족은 다르지만 모두가 제국의 신민입니다. (중략) 조선과 대만에는 각기 총독부를 두고 각자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습니다¹⁴⁾. 「지리보충교재」 제1과 「대일본제국」

14) 我が大日本帝國はアジア州の東部に位して、太平洋にある日本列島と、アジア大陸に突出せ

우리나라는 아시아주 동부에 위치하고 일본열도와 조선반도로 이루어져있다. 그 밖에 중국으로부터 임대한 관동주와 연합국으로부터 위임받은 남양군도가 있다. (중략) 행정상 혼슈·시코쿠·규슈를 3부(府) 43현(縣)으로 나누어, 부에는 부청, 현에는 현청을 두고 있다.(중략) 조선과 대만에는 총독부, 관동주에는 관동청, 남양에는 남양청을 두고 있다¹⁵⁾. 『初等地理書』 제1과 「我が國」



<그림1> 1920년 『尋常小學地理補充教材』 <그림2>1933년 『初等地理書』

위 내용을 보면 두 교과서의 내용은 단원명이 바뀌었으나, 전개되는 방식이나 내용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그러나 기존의 내용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관동주를 중국으로부터 임대받은 내용과, 남양군도를 위임받은 내용, 그리고 총독부를 두고 ‘다스리고 있다’는 부분이 ‘두고 있다’는 표현으로 바뀐 점이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남양군도에 대한 부분은 지리교과서에 단원 자체로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일본이 위임통치하는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동주에 대한 내용은 일제가 1915년 1월 18일 중국의 위안스카이 정권에게 총 14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중 하나가 관동주의 임대권한을 연장하

る朝鮮半島とより成る。日本列島は大小あまたの島々より成り、東北より西南につらなりて、長さ凡そ一千二百里に及ぶ。列島中大なるものには、中央に北海道本島、本州、四國、九州あり、西南に台湾あり、北に樺太(南半)あり。(中略)九州と台湾との間につらなりて琉球列島をなせるもの、及び北海道本島の東北につらなりて千島列島をなせるものあり。又本州南方の洋中には小笠原諸島あり。(中略)我國はオホーツク海、日本海、黃海、支那海等をへだててロシア領と支那とに對し、朝鮮にては、ただちにシベリヤ及び支那の滿州につづき、樺太(南半)にては、北半のロシア領につらなれり。(中略)民族は相違なれども、ひとしく帝國の臣民たり。(中略)朝鮮と台湾にはおのおの總督府をおきて、それぞれの地方を治む。

15) 我が國はアジア州の東部にあつて、日本列島と朝鮮半島から成立つてゐる。そのほかに支那から借りた關東州と列國から預つた南洋群島がある。(中略)行政上、本州·四國·九州を三府四十三縣にわけ、府には府廳縣には縣廳をおいている。(中略)朝鮮·臺灣には總督府、關東州には關東廳、南洋には南洋廳をおいている。

는 것이었다. 이 계기로 중국에서도 반일감정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교과서의 기술된 내용에서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숨긴 채, 관동주에도 일본의 행정기관을 두고 실지배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과 중국의 반감을 살 것을 우려하였는지, 교과서에 기술방식에서 ‘다스린다’는 표현을 피하고 단순히 행정기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면적을 나타내는 삽화에서는 조선과 혼슈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심상소학지리보충교재』가 3·1운동의 여파를 의식해서 제작된 조선인 아동만을 위한 보충교재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조선을 우측에 표기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일제의 본격적인 교육정책의 변화는 <중일전쟁>에서 승리하고 한반도 전체를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기획하고 간주하면서 부터이다. 일제는 연이은 전쟁을 치루면서 고갈되는 인적, 물질적인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조선인들에 대한 <내선일체>를 더욱 강화한다. 조선인에게는 황국신민으로써의 정조를 함양하기 위해 사회, 교육, 가정 등 내부적으로 전시체제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군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대대적으로 주입하기 시작한다.

특히 강점말기에 편찬된 모든 교과서는 다양한 교과목들을 함축 시켜놓은 것으로 교육의 연계성을 고려했다기보다는 단 한권의 교과서를 통해 일본인으로서 알아야할 종합적인 기본상식을 학습자인 조선인에게 가르치고자 한 ‘敎化書’라 생각된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가르쳐야할 전반적인 내용을, 일제가 원하는 일본인상을 토대로 인성과 덕목을 갖추게 하여 하루빨리 ‘충량한 신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일제의 처방이다.

전시체제기의 교육정책은 ‘국체명정’, ‘내선일체’, ‘인고단련’이라는 3대 강령의 실천을 통해 충성스러운 황국신민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모든 교과목 속에 다양하게 투영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리교과서는 연이은 전쟁승리로 인해 <대동아공영권>이 확장되자 지도를 수시로 수정하여 재개정하게 된다.

이 시기의 교육정책의 핵심은 황국신민으로서 일본어를 상용하고 근로생산의 자세를 확립할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수련을 강화하여 충성스런 황군을 육성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황국신민에 걸맞은 교육환경을 하루빨리 확립하고자 1938년과 1943년에 <조선교육령>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여 교육의 근본적인 부분에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제는 1941년에 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개칭하

고, 체계적인 황국신민교육을 위한 주입식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조선인들에게도 시국의 중대성을 거듭 강조한다. 특히 태평양전쟁기에 발행된 지리교과서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교과서와 달리 구성면에서부터 큰 변화를 시도했다.

태평양전쟁기 지리교과서의 변화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편찬된 교과서의 구성과 목차만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 국가적으로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나타는 교과서 내용의 변화란 무엇인지 먼저 『初等地理』(1942, 1944)의 두 텍스트의 목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표 2> 태평양전쟁기 지리교과서 구성의 변화(5학년)

| 단원 | 1942년 『初等地理』 上卷 | 1944년 『初等地理』 5学年 |
|----|-----------------|------------------|
| 1 | 大日本帝国 | 日本の地図 |
| 2 | 朝鮮地方 | 美しい国土 |
| 3 | 樺太地方 | 帝都東京 |
| 4 | 北海道地方 | 東京から神戸まで |
| 5 | 奥羽地方 | 神戸から下関まで |
| 6 | 関東地方 | 九州とその島々 |
| 7 | 中部地方 | 中央の高地と北陸·山陰 |
| 8 | 近畿地方 | 東京から青森まで |
| 9 | 中国及び四国地方 | 北海道と樺太 |
| 10 | | 台湾と南洋群島 |
| 11 | | 朝鮮 |
| 12 | | 関東州 |
| 13 | | 大東亜 |
| 14 | | 満州 |
| 단원 | 1942년 『初等地理』 下卷 | 1944년 『初等地理』 6学年 |
| 1 | 九州地方 | 支那 |
| 2 | 台湾地方 | インド支那 |
| 3 | 我が南洋群島 | 東インドとフィリピン |
| 4 | 関東州 | インドとインド洋 |
| 5 | 日本総説 | 西アジアと中アジア |
| 6 | 満州 | シベリヤ |
| 7 | 中華民国 | 太平洋とその島々 |
| 8 | アジア=ヨーロッパ | 世界 |
| 9 | アメリカ大陸 | 北アメリカと南アメリカ |
| 10 | 太平洋 | ヨーロッパとアフリカ |
| 11 | アメリカ大陸 | 皇国日本 |
| 12 | 日本と世界 | |
| 13 | 地球の表面 | |

먼저 <표 2>에서 1942년에 편찬된 지리교과서를 보면 1930년대에 편찬된 지리교과서와 구성면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1941년 4월

국민과(國民科)를 발족시키면서 군국주의가 주도하에 재탄생된 지리교과서는 급진적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교과서의 변화는 국민과의 설립취지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덕, 언어, 역사, 국토국세 등에 대해서 습득하게하고, 특히 국체의 정화를 분명히 하여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황국의 사명을 자각하게 할 것을 요지로 한다. 황국에 태어나게 된 기쁨을 느끼도록 하여 경신봉공의 진의를 체득하게 할 것.¹⁶⁾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된 일제는 조선인을 100% 신뢰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제는 조선인을 황군으로 양성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동들에게 활용되는 교과서에 군부의 국가정세가 고스란히 투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점말기에 설치된 국민과(國民科)는 국가 전시체제에 학교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시 중에서도 격동기에 편찬된 1944년 『初等地理』는 기존 지리교과서의 구성방식에서 많은 부분이 변화했다. 종래와 같은 지방별, 지역별 구분은 아예 사라지고, 일본의 수도 東京을 시작으로 「東京から神戸まで」, 「神戸から下關まで」, 「東京から青森まで」, 「北海道と樺太」 식의 단원명으로 바뀌었고, 일본이 식민지배하는 전 지역을 5학년 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다. 또한 전쟁이 발발되기 이전에 지리교과서에서 조선, 일본을 막론하고 모든 단원의 제1장에서 「大日本帝國」이라는 단원명을 배치하였는데, 전시에 편찬된 지리교과서는 「日本の地図」로 변경배치 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단원의 내용은 기존의 교과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이 추가된 부분에는 적대국인 미국을 견제하는 듯한 내용이 기술되어있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밖에 다른 단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전시를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관련된 단원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북쪽의 지시마열도, 중앙의 혼슈, 남쪽의 류큐열도가 각각 태평양을 향해서(중략)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들은 무언가 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보아

16) 我が國ノ道徳、言語、歴史、國土國勢等ニ付テ習得セシメ特ニ國體ノ精華ヲ明ニシテ國民精神ヲ涵養シ皇國ノ使命ヲ自覺セシムルヲ以テ要旨トス。皇國ニ生レタル喜ヲ感ゼシメ敬神奉公ノ眞義ヲ体得セシムベシ。

도 일본열도는 평범한 형태는 아닙니다. 아시아 대륙 전면에서 서서 태평양을 향해 늠름하게 뻗어가는 모습이 상상됨과 동시에 태평양에서 대륙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¹⁷⁾.「日本の地圖」

혼슈는 북동에서 남서로 굽으면서 태평양을 향해 가장 돌출되어 있는 곳, 일본열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정중앙에 위치한 곳에 제국의 수도 도쿄가 있습니다. (중략) 동경은 일본 전체의 선두에서 서서 용감하게 태평양으로 뻗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¹⁸⁾ 「帝都東京」

이즈시치지마·오가사와라제도도 모두 도쿄에 속해있으나, 우리 본토에서 남태평양 위로 길게 연결되어있는 섬들로, 군사상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¹⁹⁾. 「東京から神戸まで」

먼저 「日本の地図」의 단원은 종래의 「大日本帝國」이라는 단원명에서 변경된 것으로, 내용상에서 전개방식과 구성은 기존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하다. 그러나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태평양전쟁>이 한창중인 만큼, 태평양 건너 미국을 향한 일본의 적대적인 이미지가 곳곳에 서사되어 있는데, ‘태평양을 향해 뻗은’, ‘태평양에서 대륙을 지키는’ 등의 내용으로 태평양 사수를 위한 일본의 강한 의지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 단원은 대륙에 위치한 조선인으로 하여금 태평양 건너편 세력(미국)에서 이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일본열도로 상징화하고, 일본의 적대국인 미국의 위치를 직간접적으로 아동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황국 일본의 강한 기운이 깃든 일본열도가 적으로부터 대륙에 위치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시국의 중대성 또한 아동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帝都東京」, 「東京から神戸まで」의 두 단원은 앞에 「日本の

17) 北の千島列島、中央の本州、南の琉球列島が、それぞれ太平洋へ向かって(中略)こうした形から、われわれは何かしら強い力がこもつてゐるやうに感じます。どう見ても日本列島はへいぼんでな形ではあいません。アジア大陸の前面に立つて、太平洋へ向かつて雄々しく進むがたが想像されるとともに、また太平洋に對して大陸を守る役目をしてゐるやうにも考えられます。

18) 本州が北東から西南へまがりながら、太平洋へむかつていちばん突きでてゐるところ、日本列島全体からみてちやうど眞中にあたるところに、帝都東京があります。(中略)東京は日本全体の先頭に立つて、雄々しく太平洋へのり出さうとしてゐる様にみえるではありませんか。

19) 伊豆七島·小笠原群島は、いずれも東京都に屬してゐますが、わが本土から南の方太平洋上に長く連なる島々で、軍事上きはめて大切なところです。

地図」의 단원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도 도쿄가 태평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황국일본의 수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열도 정중앙에 위치한 ‘帝都東京’이 태평양을 향해 뻗어나가는 대도시적인 위엄과, 남태평양에 위치한 군사적인 요충지가 동경에 속해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시에 편찬된 지리교과서에서는 군국주의적이고 시국의 중대성만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지리교과서처럼 각 부(府)와 현(縣)을 중심으로 한 전개방식에서는 벗어났으나, 도쿄를 시작으로 이동하면서 대도시에 대한 지지(地志)를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東京から神戸まで」, 「神戸から下關まで」 등의 단원에서는 ‘OO에서 OO까지’ 가는 길목에 대한, 지리, 도시, 강(하천), 산맥에 대한 특징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이 시기에 편찬된 지리교과서에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인 아동을 위해 1943년에 편찬된 『初等科地理』에 기술되지 않은 단원이 조선인 아동용 지리교과서에 수록되어있는 점이다. 당시 조선인과 일본인 아동을 위한 교육목적은 당연히 <대동아공영권> 전 지역을 일본이 맹주로서 실지배하는 ‘대동아지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표 2>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인 아동을 위해 제작된 『初等地理』 6학년용에서는 ‘외국지리’로서 중국,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북·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세계 전 지역을 가르치고 있으나, 일본인 아동용 『初等科地理』를 보면 미국과 유럽에 대한 내용을 일체 가르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일체의 움직임은 기존 교과서에서 일본과 교류하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해왔다면 적대관계에 놓인 현 시점에서 그들의 우수성을 아동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의미 없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인을 위한 지리교과서에는 유럽과 미국에 대한 단원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다. 편찬 시기를 비교해도 조선(1944), 일본(1943)에 발행되었기 때문에 조선인 아동을 위한 지리교과서의 내용에서 충분히 배제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러질 않았다. 이러한 의문점을 밝혀내기 위해 구체적인 설명에 앞서 「北アメリカと南ヨアメリカ」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다.

아메리카에는 원래 아시아 출신인 사람들이 평온한 생활을 즐겨왔으나(중략) 여기 원주민을 심하게 압박하고, 자신들은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여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구축한 것입니다.(중략) 그러나 우리 국력이 점차 발전하여 가는 것을 시기하여, 미국을

비슷한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이들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우리 국민의 이주를 가로막거나 제한하곤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배척당했습니다²⁰. 「北アメリカと南アメリカ」

이 단원은 기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구성은 흡사하다. 그러나 교과서에 기술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적대국인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위 인용문을 보면 미국은 아시아인의 터전을 빼앗은 나라, 주민을 압박하고 빼앗아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점, 일본을 시기하고 국민의 이주를 방해하고, 중국인도 함께 배척시키는 나라로 서술하여 전반적으로 아시아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여기서 일본인에게 외국지리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자국민이기 때문에 ‘황국신민의 일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하여 굳이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조선인에게는 일본과 적대관계에 놓여있는 미국을 ‘아시아인’의 ‘공적’으로 간주하여 <대동아공영권>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인 아동에게도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황국신민하의 전시체제에서 일본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안보의식의 함양과 <태평양전쟁> 발발명분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전시체제하 일제의 교육방식은 ‘전쟁’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조선인을 징병하기 위해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적극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에 대한 왜곡된 교육방식은 일본에서도 조선인을 전쟁에 동참시키기 위한 전시교육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일제는 미국을 지금까지 줄곧 강대국으로 표현해 왔으나, 전시교육체제에서 오히려 미국이 일본의 국력을 시기하는 내용으로 자신들에게 적개심을 들어내는 내용으로 서술하여 학습하는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감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조선인을 전쟁에 동참시키기 위해 미국이 자신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자각하도록 하여 잘못된 현실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

20) アメリカには、もともとアジア出身の人々が安らかな生活を楽しんでゐたのですが、(中略)この原住民をひどく壓迫し、自らは豊富な資源を開発して、今日のアメリカの基を築いたのです。(中略)しかしわが國力が次第に發展して行くのをねたんでアメリカの諸國は、米國をはじめとして、これらの人々を排斥したばかりでなく、不法にもわが國民の移住をさしとめたり、制限したりしました。支那の人々も、わが國民と同じように排斥されました。

시교육정책이 고스란히 교과서에 투영되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국의 중대성을 알리고, 적대심을 고취시키는 일제의 논리로 전쟁의 정당성을 조선인에게 서사한, 다음과 같은 단원도 찾아볼 수 있었다.

대동아의 여러 지방은 이렇듯 우리나라의 힘과 지도에 의해 새롭게 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이들 지방의 모든 사람들을 대동아민족으로 부활하게 하여 각기 각자의 지방을 획득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사명인 것입니다²¹⁾. 「大東亞」

위 인용문에서 나타나 있듯이 일제는 전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아동들에게 끊임없이 주입시키려고 있었다. 이는 대동아공영권을 수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아동들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44년 전쟁이 격렬한 시기에 발행된 지리교과서는 ‘일본 국토의 국제와 주변국들의 정세를 가르치고, 황국의 사명으로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인 전시교과서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리뿐만 아니라 전시에 일제가 편찬한 모든 교과서는 군국주의에 충실한 내용을 담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나오며

이상과 같이 일제강점기 동안 초등교육기관에서 활용된 지리교과서를 통해서, 전쟁이 <지리> 교과서 편찬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 등 구체적인 실상을, 그 내용을 통하여, 고찰해 보았다.

강점초기 일본이 조선인에게 가르치고자한 지리교육은 서양의 문명론을 기반에 둔, 강대국의 우수성과 경제대국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외국지리’와 ‘향토지리’가 바탕인 ‘일본지리’에서, 지역적인 특성과 대도시 위주로 地誌, 기후, 지형, 하천, 산맥 등을 지역별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는 애국정신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방식으로서, 실생활과 생업이 관련된 내용들이 단편적으로 나열되어, 일본을 알리기 위한 지리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지리에서는 서구 열강들과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맞게 남양

21) 大東亞の諸地方は、このやうにわが國の力と指導によつて、新しく立ちあがろうとしてゐます。これら地方のすべての人々を、大東亞民族としてよみがへらせておののそのところを得させることこそ、日本の使命なのであります。

군도, 관동주 등 대동아공영권을 속속히 교과서에 추가시키며, 세계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는 일본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가 전시체제에 접어들면서 설치된 국민과(國民科)는 기존 지리교과서의 구성과 내용 등, 교육내용의 상당부분을 바꾸면서 ‘황국신민의 사명’을 자각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급변한다. 전시 지리과목의 내용은 이전처럼 ‘日本地誌’를 단순히 가르치는 교육이 아닌 적대국으로부터의 일본이 어렵사리 구축한 대동아공영권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과 적국에 대한 적대심을 키우기 위한 안보교육용 전시교과서로 돌변했다.

이러한 <지리>교과서의 변화는 1930년대부터 조선인 징집 동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패전직전까지도 일제가 조선인을 믿지 못한 결과가 지리교과서에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은 적국에 대한 적대심 고취와 국민의 전쟁참여를 도모, 그리고 전시체제에 걸맞은 군국주의와 소비니즘 정책에 충실한 국가체제가 전시 교육 정책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교육과정에 막중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福澤諭吉(1869) 『世界國盡』 慶應義塾藏版
 文部省(1891) 「小學校敎則大綱」
 文部省(1890) <小學校令施行規則>
 朝鮮總督府(1932) 『初等地理書』
 朝鮮總督府(1926) 『尋常小學地理補充敎材』
 文部省(1941) <國民學校令施行規則>
 《東亞日報》(1921.3.2.)
 木全清博(2006) 『近代日本の敎科書の歩み』 サンライズ出版 p.50.
 최양호(1990) 「일제 통치하 한국에 있어서의 초등 국사교육과정연구」 『역사교육』 48집, p.66.
 권종린(2006) 「일제시대의 조선 교육과 정책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7.
 박경식(1986)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이출판사, p.398.

| |
|--------------------------|
| 논문 투고 일자 : 2016. 12. 01. |
| 논문 심사 일자 : 2017. 01. 21. |
| 게재 확정 일자 : 2017. 01. 22. |

 <要旨>

 太平洋戦争期朝鮮人教化の方向設定
 -朝鮮總督府編纂<地理>教科書を中心として-

柳 徹・金順楨

本稿は、太平洋戦争勃発以前と以後に分けて、朝鮮總督府で編纂した<地理>教科書をもとに「戦争」が当時教育に与えた影響と、これらの影響が教科書の構成にどのように変化を与えたのか、具体的な実状を究明するのが目的である。太平洋戦争期以前まで朝鮮人に教えようとした地理教育は世界文明の動きに目を開かせる文明地理の要素を始め、強大国の優秀性と経済大国を中心とする外国地理と日本地理の関係性など、日本の世界的地位の理解や国民精神の涵養のための実用的知識の習得を目的とする内容が主流であった。しかし、日本が太平洋戦争に立ち向かうため発足した国民科は既存の地理の教科書の構成から教育内容の相当部分を変えながら東亜及び世界における皇国の使命を自覚せしめる教科として位置づける。つまり戦争期に編纂された戦時地理教科書は以前のように日本地誌を単に教える教育ではなく、敵対国から日本がようやく構築した大東亜共栄圏を防衛するための目的及び米国への敵意を朝鮮人にも認識させるための安保教育用の戦時必須科目として急変するのである。したがって、戦争は敵国に対する敵愾心の鼓吹と国民の戦争参加を図り、また戦時体制にふさわしい軍国主義とショービニズムに忠実な国家体制が戦時教育政策に投影され、当時地理教科書の編纂にも多大な影響力を及ぼしたといえる。

 Determining the Principle of Chosun People Reformation during the Pacific War
 -Focusing on <Geography> the text book publish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

Yoo Chul · Kim Soon-Jeon

This paper aims to find concrete facts about how the Pacific War exerted an influence on education and how these effects changed the structure of the textbook by studying the text book <Geography>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Before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the <Geography> education for Chosun people was aimed at elements of civilization geography to awaken them to the world civiliz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geography and Japanese geography focusing on the excellence of the powerful nations and the economic power. Most of the education aimed to acquire practical knowledge to cultivate the national spirit. However, as Japan entered the Pacific War, they made a great deal of change in content of the existing Geography textbook, and the <Geography> became the subject to educate people to become aware of the mission of the empire in East Asia and the world. Wartime Geography Textbook published in the war was not used for an education to simply teach Japanese geography as before. However, the Geography course became a wartime required course in the purpose of defense of the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that Japan built from hostile countries and the security education to recognize Chosun people hostility toward the US. Therefore, the War promoted participation of the war and generated a hostility to enemy countries. As the national system that is faithful to the militarism and the chauvinism policy appropriate to a war footing is reflected in the wartime educational policy, at the time, it had a great impact on the compilation of geography textbooks.